

고려 敎藏의 고려 및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Goryeo-gyojang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朴鎔辰 (Park, Yong-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 |
| 2. 고려시대 교장의 유통과 전승 | 3.1 간경도감의 증수와 간행 |
| 2.1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 3.2 조선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
| 2.2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 | 4. 맺음말 |
| 2.3 송대 간본의 전래와 유통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高麗 敎藏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통해 조사한 한·중·일의 장소 가운데 고려 교장의 국내 불교계 유통과 전승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는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이며, 이 총람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불교계에 유통되어 활용된 장소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 교장의 고려시대 유통과 전승에 대해서는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판,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 송·원대 각본의 전래와 유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판은 고려시대 목판 12종, 해인사 중간본 『천태사교의』 1종 등 모두 13종이 확인된다. 기타 고려시대 사찰 간행 자료는 妙蓮社 중간 『금광명경문구』 등 3종, 고려 교장과 관련된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을 비롯하여 『法界觀式抄』 등이 있고, 이들 자료는 원간기나 간행기록이 없지만, 국내외 유일본으로 가치가 크다.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는 장소 가운데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장소는 모두 11종이며, 대장도감에 참여한 각수의 판각본으로 『注仁王護國般若經』, 『弘贊法華傳』이 확인된다. 고려 후기 유통과 관련하여, 기복도감에서 『천태사교의』를 중간하여 유통하였다. 고려 교장으로 활용된 장소 가운데 송나라에서 판각하여 수입한 정원의 편찬인 『대방광불화엄경소』와 원나라의 간행본을 수입하여 간행한 징관의 『화엄경장요』가 현전한다.

고려 교장의 조선시대 유통과 전파는 1461년부터 간행된 조선 세조대 간경도감본에서 찾을 수 있다. 간경도감의 증수본으로 『因明入正理論疏鈔』 등이 있고, 최근 송광사에서 『圓覺經大疏釋義鈔』 등 새로운 장소가 발견되면서 교장 간행과 전파에 대한 이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간경도감의 증수를 살펴보면, 초기연구에서 『大方廣佛華嚴經合論』, 『金光明經文句』 등의 8종을 간경도감 중간본으로 추정하였지만, 최근 송광사 등에서 신출본이 발견되면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으로는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顯正記』, 『佛說阿彌陀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있는데, 이들의 저본은 고려 교장 장소류의 전본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조선시대 언해본의 저본은 고려시대의 전본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교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타 고려 교장의 중간과 유통을 살펴보면, 『대소주경』이 고려시대 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간되어 유통되었고, 다수 인정되어 활용되었다.

要語: 고려교장, 의친, 신편제종교장총록, 해인사, 대장도감, 기복도감, 간경도감

*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pyj04667@hanmail.net)

투고일: 2020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0일
서지학연구, 제83집, 151-171,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151>

<ABSTRACT>

This paper is the result of researching the Buddhist commentaries (教藏) of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Goryeo-gyojang (高麗教藏) gathering and DB construction project.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Goryeo-gyojang's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The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he Goryeo-gyojang in the Goryeo Dynasty was divided into publication and Woodblocks (經板) of Haeinsa Temple,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emples in the Goryeo Dynasty,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Daejang-dogam and Gibok-dogam, and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the scripts of Song (宋) and Yuan (元) periods. There are 13 types of Haeinsa publications and Woodblocks, including 12 Goryeo Dynasty woodblocks and 1 Haeinsa publication. Other materials published in the temples of the Goryeo Dynasty include three kinds, such as *Geumgwangmyeonggyeongmungu* (金光明經文句), and *Hwaeom Ilseunggyoeui-Bunjejang* (華嚴一乘教義分齊章) related to the Goryeo-gyojang, as well as *Beobgyegwansigcho* (法界觀式抄). Among the commentaries listed in the *Gyojangchonglok* (教藏總錄), there are 11 kinds of commentari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Daejang-dogam and Bunsu-dogam. *Jjuinwang-hogug-banyagyeyong* (注仁王護國般若經) and *Hongchan-beobhwajeon* (弘贊法華傳) are confirmed as the engravings of each member who participated in Daejang-dogam. Others are conveyed by *Cheontaesakyoewi* (天台四教儀) published in the Gibok-dogam,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大方廣佛華嚴經疏) imported from the Song Dynasty, and *HwaeomGyeong-gangyo* (華嚴經綱要) imported from the Yuan Dynasty.

The circul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Goryeo-gyojang's Joseon Dynasty can be found in the *GangyeongdoGambon* (刊經都監本) published from 1461. There are *Inmyeong-ibjeonglinonsocho* (因明入正理論疏鈔), etc. as a second edition of *Gangyeongdogam*, and as new commentaries such as *Wongaggyeong-daesoseoguicho* (圓覺經大疏釋義鈔) were discovered in Songgwangsa (松廣寺), it became possible to add an understanding of the publication and spread of the Goryeo-gyojang. Reviewing the publication of *Gangyeongdogam*, it was estimated that eight kinds of *Gangyeongdogam*, such as *Sinhwaeomgyeonghabnon* (新華嚴經合論), and *Geumgwangmyeonggyeong-mungu* (金光明經文句), as intermediate copies of *Gangyeongdogam*, but recently, a new book was discovered in Songgwangsa. It became possible to expand the study of Gyojang. Other translations published by *GangyeongdoGam* *Banyasimgyeong-yaksohyunjunggi* (般若心經略疏顯正記), *Amitagyeong* (阿彌陀經), *Wongakgyeong* (圓覺經). Reviewing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other Goryeo-gyojang, *DaeSojuGyeong* (大疏注經) was circulated and used from the 15th to the 17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following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Goryeo Gyojang(高麗教藏), Uicheon(義天), Sinpyeonjeong-gyojangchongnok(新編諸宗教藏總錄), Haeinsa(海印寺), Daejang-dogam(大藏都監), Gangyeng-dogam(刊經都監), Gibok-dogam(祈福都監)

1. 머리말

고려 敎藏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고려를 비롯한 동아시아 諸國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조성한 것이다. 교장은 경·울·논 등 불전에 대하여 주석한 章疏, 계율 및 교단 관련 장소, 찬술 및 사전·사회류의 장소 등을 종합한 일대 총서를 말한다. 이 敎藏의 총목록이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이다. 이 『교장총록』과 관련하여 11-12세기 동아시아불교문화권의 교류 연구에 있어, 대장경의 교류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당시 대장경 이상으로 활발하게 교류한 佛敎 章疏의 교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고려 교장의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에 대한 초기 연구는 고려대장경의 속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高麗續藏雕造攷』를 들 수 있다.¹⁾ 이후 『교장총록』 수록 장소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서의 전존 현황이나 유통과 전승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²⁾ 종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이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가 광범위하고, 국외 조사가 있어야 가능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때문이었다.

최근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는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조장과 재조장의 텍스트 및 화상 DB를 갖추었고, 경전의 주석에 해당하는 敎藏 DB를 연동하여 고려대장경을 갖추는 高麗 敎藏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연구를 주관하고,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사업의 연구성과이자 보고서가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으로 정리되었다.³⁾ 이는 1937년 大屋徳城의 『高麗續藏雕造攷』라는 연구 이후에 처음 이루어진 결과이며, 세계 유일본의 발굴을 비롯 한국 불교를 넘어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장소를 조사, 정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高麗 敎藏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통해 조사한 한·중·일의 장소 가운데 고려 교장의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과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고려 교장의 국내 유통과 전승을 개관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이며, 이 총람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되어 활용된 고려 교장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불교계의 교학이나 불교 상호교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日本 東京: 便利堂, 1937).

2) 오용섭, “11-12세기 교장류 불서의 한중일 교류,” 『석당논총』 58(2014. 3);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2014. 8); 竺沙雅章, 『宋元佛敎文化史研究』(日本 東京: 汲古書院, 2000); 김영미, “高麗大藏經本 『釋摩訶衍論』의 底本 연구,” 『梨花史學研究』 59집(2019. 12); 장동익, “佛典의 流通을 통해 본 高麗時代의 韓·日關係,” 『석당논총』 58(2014. 3). 최근 敎藏의 연구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南權熙, “韓國의 大藏經 研究 現況과 展望 - 2000년대를 중심으로,” 『日本에 流通된 古代韓國의 佛敎典籍과 佛敎美術』 발표논문집, 新羅寫經프로젝트國際워크숍(서울: 2012);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8(2014. 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교장프로젝트팀; 연구사업단(교장도감)편,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 [1]·[2](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19.

2. 고려시대 교장의 유통과 전승

『교장총록』에 수록된 章疏 및 현전 현황을 살펴보면, 經部 561부 2,719권, 율부 142부 469권, 논부 307부 1,692권 합계 1,010부 4,880권이며, 약 384부가 전존하고 있다. 본고의 고려 교장은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를 중심으로 의천이 활동하던 시기에 간행된 장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 교장이 고려시대에 조조되어 유통된 상황에 대해서는,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판,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 송대 간본의 전래와 유통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2.1.1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판

해인사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다수의 고려시대 경판을 소장하고 있어, 교장의 간행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려 교장과 관련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하거나 수장된 경판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판

연번	서명	찬자	시기	간행기록	비고
1	菩薩戒本持犯要記	元曉述	고려	간기 없음, 판미제는 '持犯宗要'	1판
2	起信論疏	元曉述	고려	간기 없음	1판
3	十門和諍論	元曉述	고려	간기 없음	2판
4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澄觀述	고려	간기 없음	1판
5	大方廣佛華嚴經疏	澄觀述	고려	간기 없음, 판미제 권차 '一下'	60권본 권2
6	[大乘起信論演奧鈔]	[延俊述]	고려	간기 없음, 권제5, 권제7	3판 6면
7	起信論疏筆削記	子璿述	고려	간기 없음, 권제3, 5, 6	3판 6면
8	[大乘起信論科文一卷]	[淨源重刊]	고려	간기 없음	2판 4면
9	大品般若經科三卷(或一卷)	亡名(述)	1230년	道人 惠圓 庚寅年 開刊	2판
10	大方廣佛華嚴經疏 (如來出現品)	淨源 錄疏注經	1241년	辛丑五月 日伽倻山下鋸寺 彫造	4권 57판
11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如來出現品)	澄觀述	1241년 추정	간기 없음	2권 29판
12	天台四教儀	諦觀錄	1089년	大安五年(1089)歲次己巳二月 日海印寺重刻	
13	略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	慈愍集	고려	간기 없음	총록 무

해인사 수장 경판은 대부분 간기가 없지만 고려시대 경판으로 추정되는데, 위의 <표 1> 연번 1-3의 원효 찬술은 고려 11-12세기의 경판으로 추정되며 서체와 판식이 유사하다. 『보살계본지범요기』는 총 1판 2면이며, 판미제는 ‘持犯宗要’이지만, 내용은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에 해당한다. 또한, 원효의 『기신론소』는 총 1판 2면이며, 간기는 없지만 같은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연번 4-8번의 경판도 원효 찬술 경판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⁴⁾

『대방광불화엄경소』는 1판 2면이고, 판미제의 권차는 ‘一下’이며, 장차는 제5와 제6장에 해당한다. 이 경판은 간행시거나 판식이 경기도박물관장본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⁵⁾ 의천이 간행한 교장의 고려 유통과 전승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신초』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延俊의 『大乘起信論演奧鈔』(이하, 『연의초』)로 추정되며, 총 3판 6면이 전존한다. 권차는 권제5의 제11-12장, 21-22장, 권제7의 제25-26장이며, 간행 기록은 없다. 기타 子璿述 『起信論疏筆削記』, 淨源이 重刊한 것으로 추정되는 『大乘起信論科文』과 함께 간행기록은 없지만, 서체나 형태적 특징과 판식 등에 의거 고려시대 경판으로 추정된다. 『연의초』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그 가치는 크며, 의천의 『원종문류』에 인용되어 활용되었다.

<연번 9>에서 <연번 11>은 1230년에서 1240년대의 대몽항전기에 간행되었으며, 해인사에서 직접 간행하였거나 혹은 인근 사찰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인사 수장 경판 가운데 간기가 확인되는 『대방야경과』는 권말에 ‘道人 惠圓 庚寅年 開刊’이라 하여, 도인 혜원이 1230년으로 추정되는 경인년에 개판하였다. 『교장총록』의 ‘大品般若經科三卷 或一卷’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10>의 『대방광불화엄경소』 『여래출현품』 4권 57판은 淨源의 『대소주경』에 해당한다. 본서는 辛丑(1241) 5월에 가야산 하거사에서 조조되었으며,⁶⁾ 『대소주경』 가운데 『여래출현품』만을 별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판식과 각수명이 확인되는 <연번 11>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여래출현품』 역시 1241년을 전후한 대몽항전기에 간행한 것으로 불력에 의한 외침의 퇴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교장 가운데 해인사의 간행이 확인되는 자료는 諦觀의 『천태사교의』이며, ‘大安五年歲次己巳二月日海印寺重刻’이라 하여, 大安 5년(1089)에 해인사에서 중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태사교의』의 저본은 분명치 않지만 고려 전본이나 의천이 구득한 전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것이다. 한편, 慈愍의 『略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은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지 않지만, 의천이 송나라의 원조에게서 구득한 것을 중간한 것이다.

이상의 해인사의 경판은 『천태사교의』와 『왕생정도집』을 제외하면 대부분 화엄종의 소의 장소에

4) 남권희, “諸宗教藏 文獻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2017년 고려 교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7), 84-95.

5) 남권희, “화엄경 주석서의 간행과 유통,” 『고려 제종교장과 화엄장소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136.

6) 간행기록은 卷3末에 ‘辛丑(1241) 五月日 伽耶山 下鉅寺 雕造’, 卷4末에 ‘龍壽寺社堂比丘 支揆 主張 下鉅寺道人 天章 戒湛 勸緣 道人 聞契 校勘 辛丑五月日 伽耶山 下鉅寺 彫造’가 기록되어 있다.

해당한다. 이들 경판의 대부분은 간행처와 간행시기가 분명치 않지만, 해인사에서 간행하였거나, 홍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뒤 후대에 해인사에 수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1.2 고려시대 사찰의 간행과 유통

고려시대 해인사 이외의 기타 사찰에서 고려 교장이 간행되어 유통된 사례는 확인키 어렵지만, 이 가운데 교장과의 관련이 추정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사찰	서명	찬자	시기	간행기록	비고
金沙寺	行願品別行疏	澄觀述	1256	歲在丙辰(1256)八月日檀那山月南典香無用誌 洪武卅年(1387)十月日李穡跋板留京都金沙寺	국립중앙박물관
妙蓮社	金光明經文句	天台述	1296	元貞二年丙申歲(1296)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 彫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玄	송광사
金生寺	大華嚴經疏	澄觀述	고려	施主金生寺住持廣通無碍弘慈普濟大師重大匡 利世君玉崧	경기도박물관

金沙寺의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는 『교장총록』의 ‘行願品別行疏一卷 澄觀述’에 해당하며, 권말기록은 다음과 같다.

歲在丙辰(1256)八月日檀那山月南典香無用誌 山人信之校勘 山人牧其書 同願緣起寺火香
心益
右行願品…元子千秋刊板流通而掌行者晋川君姜仁富也 仁富傳旨臣稿跋其屋且日政堂鄭台權
嘗欲刊此疏 板其未就而辛其室韓夫人…洪武卅年(1387)十月日…李穡跋…板留京都金沙寺
角之書跋

금사사의 『행원품별행소』는 1256년檀那山月南典香無用の 지어가 있어 전라도 월출산 월남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1387년에 이색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본서는 京都 즉 개경의 금사사에 목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금사사는 조선 세종대에 일본에 하사된 진언대장경판을 소장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제주 妙蓮社의 『金光明經文句』는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重彫되었으며, 고려 전본을 저본으로 중간한 것으로 추정된다.⁷⁾ 고려 전본은 의천의 교장과 관련이 있겠지만 홍왕사 교장도감의 간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광명경문구』는 천태종의 소의 교전에 해당한다. 이 『금광명경문구』는 송광사 구장인 점으로 미루어, 지역적으로는 천태종 백련사와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고, 제주에서 간행되어

7) 大屋徳城(1937), 98에서는 속장의 중조로 추정하였다. 奉宣과 幹善의 용어의 배치를 들어 원간기의 『奉宣雕造』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백련사나 송광사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金生寺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교장총록』의 ‘大華嚴經疏 二十卷(或開爲四十卷) 澄觀述’에 해당한다. 본서는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板尾題는 ‘花嚴疏一上’으로 되어있어, 서지적 권수는 상하 10권이고, 물리적 권수는 20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는 고려 후기 추정의 목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권1상의 권말에 施主人 ‘金生寺 住持 利世君 玉隣’이 목서되어 있으며, 인물과 시기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2.1.3 기타 고려시대 유통과 전파

기타 고려 교장의 유통이나 전승과 관련된 장소류는 다음과 같다. 이들 자료는 원간기나 간행기록이 없지만, 국내외 유일본으로 가치는 크다.

<표 3> 기타 고려시대 교장류

서명	찬자	원간기	간행기록	소장처	비고
貞元新譯花嚴經疏	澄觀述	無(1095년)	不明	안동 보광사	권6 제11장
華嚴一乘敎義分齊章	法藏述	不明	不明	안동 보광사	권3 제27장
[仁王經疏]	미상	不明	不明	안동 보광사	필사본
圓宗文類	義天編定	不明	不明	안동 보광사	권22 제43장
法界觀式抄(摭要鈔)	遵式述	不明	不明	淸涼寺	유일본
圓覺經玄議	德素述	不明	不明	福田庵	유일본
妙法蓮華經玄義	智者說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法華文句記	湛然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無常經新鈔	省辨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유일본
瑜伽師地論略纂	窺基述	不明	不明	松廣寺	
大乘起信論義記	법장술	不明	不明	개인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종밀술	不明	不明	백천사	卷上

『정원신역화엄경소』는 일본 大東急記念文庫에 흥왕사 壽昌 元年((1095) 간기의 권제10의 원간본이 현전한다. 안동 보광사 소장의 『정원신역화엄경소』는 권제6 제11장이고, 판미제는 ‘貞元花嚴疏六十一’이며, 판미제 하단에 각수 인명 ‘永文’이 새겨져 있어, 교장 원간본의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華嚴一乘敎義分齊章』은 판수제가 ‘所詮章 第卅七’로 되어있고, 원간본의 중간이 아니라면 원간 후쇄본일 가능성도 있다. 『仁王經疏』로 추정되는 필사본 역시 현전 『인왕경』의 장소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원종문류』는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천의 편찬서로 교장의 유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석마하연론』의 주석서인 『석마하연론통현초』와 『석마하

연론찬현소』는 홍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하였지만, 그 간·사본이 국내에 전존하는 것은 없고, 일본에도 원간본은 없지만, 중간이나 필사본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 양서의 고려 국내 유통의 일단은 『원중문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중문류』 권1에 『御製釋摩訶衍論通玄鈔引文』이 수록되어 있어, 『원중문류』를 편찬한 108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法界觀式抄』는 『교장총록』의 ‘大華嚴經 撫要鈔 四卷 遵式述’에 해당한다. 본서는 경북 봉화 청량사 복장 유물로 해인사 소장 원효 찬술 『십문화쟁론』의 목판과 판식, 크기, 서체 등이 유사하여, 판각시기는 12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묘법연화경현의』와 『법화문구기』는 2004년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나온 자료로 홍왕사 교장도감본과는 판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묘법연화경현의』는 중국본의 번각이며, 조선전기까지 보각되었고, 동일한 각수명이 확인되는 『법화문구기』와 함께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13세기에 간행된 『법화문구병기절요』나 『천태삼대부보주』 등과의 상관성은 보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無常經新鈔』와 『瑜伽師地論略纂』의 단간은 송광사 화엄전 53불도의 腹藏囊에서 나온 것으로 원간기와 간행기록이 없고, 간경도감의 간행 장소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한편, 신출의 福田庵 소장 『圓覺經玄議』는 국내의 유일본이지만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대승기신론의기』는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2권 2책이며, 간기가 없지만 고려말 간본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방광원각약소주경』은 백천사 소장의 13-14세기 추정 목판본이다. 본서는 고려 교장의 중간본으로 추정되는데, 고려시대에 기입된 각필, 여말선초에 기입된 묵서 口訣이 있고, 특히 판식과 자체에 의거 고려시대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고려 교장의 조선시대 유통과 관련하여 송광사에 소장된 간경도감 중수본과의 관련성은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

2.2.1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간행

고려시대의 교장 관련 장소류의 유통과 전승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경전 및 장소류의 간행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불전 가운데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남권희, “諸宗教藏 文獻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2017년 고려 교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7), 92.; 남권희, “天臺·法華 章疏의 刊行과 流通,” 『2015년 고려 교장 학술회의 자료집』(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5).

9) 김성수,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75(2018. 9).

<표 4>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간행

연번	서명	찬자	간행기록	비고
K.922	四分律刪補隨機羯磨	道宣述	甲辰歲(1244)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초조/금장
K.1263	新華嚴經論	李通玄述	乙巳歲(1245)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丙午歲(1246)分司大藏都監開板	초조장
K.1397	釋摩訶衍論	龍樹述	丙午歲(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丁未歲(1247)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무
K.1400	唐護法沙門法琳別傳	彥琮述	丙午歲(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丁未歲(1247)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초조장
K.1406	法苑珠林	道世集	甲辰歲(1244)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초조/금장
K.1497	續一切經音義	希麟述	丁未歲(1247)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무
K.1498	一切經音義	惠琳述	(권말간기 無)	무
K.1501	金剛三昧經論	元曉述	甲辰(1244)八月初五日優/婆塞 鄭晏誌	보유목록
K.1506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智儼述	乙巳歲(1245)分司大藏都監開板	보유목록
K.1512	慈悲道場懺法	梁武帝述	(권말간기 無)	보유목록
K.1513	華嚴經探玄記	法藏述	乙巳歲(1245)分司大藏都監開板	보유목록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는 장소 가운데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장소는 모두 11종에 이른다. 위의 고려대장경 연번 K.922에서 K.1498까지는 재조장으로 간행되었고, 기타 K.1501부터 K.1513까지는 재조장의 조조 기간에 간행된 장소이며 주로 분사도감에서 간행되었다.

『四分律刪補隨機羯磨』는 『교장총록』에 ‘刪補隨機羯磨二卷 入大藏’으로 기록되어있고, 다른 장소와 달리 대장에 입장되었음을 특기하였다. 다음의 『신화엄경론』은 李通玄의 찬술로 昇元 2년(939)에 입장되어 화엄 장소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입장에 해당한다. 『교장총록』에는 본서와 함께 志寧이 『신화엄경론』을 『화엄경』의 해당 경문 아래에 배치한 『화엄경합론』이 들어있다. 이 재조장의 『신화엄경론』은 초조장에도 입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석마하연론』은 초조장에는 입장되지 않았고, 재조장 조성시에 입장되었다.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는 『석마하연론』의 교류 기록이 확인되는데, 고려 전본이나 요본과의 관련성 등은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기타 『唐護法沙門法琳別傳』, 『續一切經音義』, 『一切經音義』는 초조장에 입장되지 않았고, 재조장과 교장에 입장되어있다.

한편, 고려대장경의 『보유목록』에는 교장의 장소 4종이 확인된다. 『금강삼매경론』, 『수현기』, 『탐현기』는 1245년(고종 32) 분사도감에서 개판되었고, 『자비도량참법』은 고려시대 간행의 목판본으로 14세기에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자비도량참법』의 주석서로는 승려 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가 있다.

10)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서울: 시간의물레, 2014), 292.

11) 김영미, “高麗大藏經本 『釋摩訶衍論』의 底本 연구,” 『梨花史學研究』 59집(2019. 12).

이상의 의천의 고려 교장의 유통이나 전파는 고려재조장 및 보유목록에 입장된 장소류의 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송대 개보장의 정장과 속장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보장은 간행 이후 신역경과 장소류를 추가 입장하였는데, 이러한 장소류를 고려에서 수용하여 대장 및 교장에 입장하여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들의 저본이나 계통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고려초조장이나 개보장 및 금장과의 저본 및 계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2 대장도감 참여 각수 판각본

고려 교장의 고려후기 간행본으로 淨源 撰集의 『注仁王護國般若經』이 있다. 본서는 『교장총록』에 ‘仁王經注 四卷 科一卷 淨源述’에 해당하고, 不空의 신역 『인왕경』에 대해 良賁과 體元의 장소를 가려 뽑아 찬집한 것이다. 의천은 1088년 이전에 정원이 본서를 간행하려는 즈음 그 필사본을 받은 바 있다. 본서는 대몽항쟁기인 13세기에 중간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본서의 판수제 하단에는 각수명이 각자되어 있는데, 권제1의 제3장과 4장에 ‘存植’ 등 11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존식은 1240년에 崔怡가 발원한 『묘법연화경요해』를 판각하였고, 같은 시기의 『圓覺類解』와 『弘贊法華傳』, 『金光明經』 등도 판각하였다. 기타 각수 역시 124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장도감이나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주인왕경』은 이 시기의 간행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인왕경』은 대몽항쟁기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발원을 담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장도감 참여 각수의 판각본으로 慧詳의 『홍찬법화전』이 있다. 이 『홍찬법화전』은 『교장총록』에 ‘傳十卷 慧詳述’이라 기록되어있다. 본서는 고려시대 판본으로, 간행기록은 없지만, 각수명 ‘존식’ 등이 있어, 124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간행으로 볼 수 있다. 『홍찬법화전』은 1115년에 덕연이 교감하여 간행한 판본이 있었고, 또한 13세기 간행본으로 송 태조명 ‘匡’, 고려 혜종 ‘武’ 등의 피휘가 확인되는데, 12세기 덕연 교감본 이후 송본이 전래되어 이를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³⁾ 한편, 慧詳의 『法華經傳記』가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있지만, 『법화경전기』가 내용이 풍부하여 향후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3 기복도감 중간본

고려 교장의 고려후기 유통과 관련하여, 기복도감에서 『천태사교의』를 중간하였으며, 그 권말 識語는 다음과 같다.

12) 송일기, “刊經都監 重修本에 대한 誤解,”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84에서 각수명을 확인하여 1240년 후만 重彫로 판단하였다.

13) 남권희, “天台·法華 章疏의 刊行과 流通,” 『2015년 고려 교장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5), 30-33.; 남권희,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종의 書誌의 考察: 圓覺類解, 法華文句并記節要,” 『書誌學報』 제19집(1997. 1), 43.

『천태사교의』 권말지어: 錄主觀師傳云 …(중략)… 但舊本字大卷重未便於齋持人皆病之令有門
人大禪師 宏之 倩人改書 鈔梓流行 欲資來學 故茲跋云 延祐元年甲寅 孟秋初吉 牧庵老人題 山人
水如書 二年乙卯(1315)五月日 祈福都監開板

위의 『천태사교의』는 1314년(延祐 元年)에 기복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牧庵老人의 題記에 따르면 구본이 글자가 크고 무거워 대선사 磬지가 改書시켜 간행한 것이다. 『천태사교의』의 간본으로는 해인사에서 大安 5년(1089)에 간행한 중각본이 확인되지만, 기복도감본과의 판각 계통은 분명치 않다. 다만, 번각본은 아니지만 이를 참고하여 개판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2.3 송대 간본의 전래와 유통

2.3.1 宋刻 정원 錄疏注經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유통

송나라 정원의 녹소주경인 『대방광불화엄경소』(이하, 『대소주경』)는 징관의 『화엄경소』를 『화엄경』의 경문 아래에 배치한 것이다.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주문하여 판각한 것으로, 고려후기에는 변상도를 판각하여 유통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일본에 사급된 이후 경판이 없기 때문에 조선 전본의 번각이 이루어졌다. 이 『대소주경』은 의천이 입송구법시 항주의 嚴明에게 판각을 주문한 것으로, 1087년(선종 4) 3월에 송 상인 徐戩 등이 『대소주경』인 ‘新註華嚴經板’을 납품하였다.¹⁴⁾ 이 『대소주경』의 원간기는 없고, 권연, 상교, 중교, 勾當雕經이 확인되며 다음과 같다.

『大方廣佛華嚴經疏』, 澄觀述, 淨源 錄疏注經의 識語
권4말: 勸緣雲間普照寺賜紫圓明大師 清慧/ 勸緣杭州管內都僧正寶月大師 脩廣
권26말: 錢唐講華嚴經明義大師 曇慧 詳校 雲間講華嚴經興教大師 常矩 重校
권120말: 大宋 寧海軍 杭州 錢塘 雕文字 嚴明 勾當雕此經¹⁵⁾

이 『대소주경』의 간행 관련자를 살펴보면, 교정에는 明義大師 曇慧가 詳校, 興教大師 常矩가 중교를 담당하였다. 상교자 담혜는 『교장총록』 권상의 화엄부에 ‘賢首國師禮讚文一卷 淨源述’에 이어 ‘清涼國師禮讚文一卷 曇慧述’이 있어, 『청량국사예찬문』의 찬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권연은 雲間普照寺賜紫圓明大師 清慧, 杭州管內都僧正寶月大師 脩廣이다. 보월대사 수광은 景祐 2년(1035)에 사자되었고, 治平(宋, 1064-1067) 연간에 內僧正이 되어 활동하다가 熙寧 원년(1068)에 입적하였다. 그는 유교의 오경과 불교학에 뛰어나 공경대부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불교사상이나 실천은 잘 나타나지 않고, 이 『대소주경』의 간행을 권연한 것만이 찾아진다.¹⁶⁾ 脩廣의

14)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4年 甲戌條.
“甲戌宋商徐戩等二十人來獻新註華嚴經板.”

15) 남권희, “화엄경 주석서의 간행과 유통,” 『고려 세종교장과 화엄장소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139 재인용.

16) 『補續高僧傳』 권23(『卍續藏』 77, p.517下).

입적이 1067년이므로 『대소주경』의 간행과는 시차가 있어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천이 『대소주경』의 판각을 의뢰한 엄명은 송나라 항주 전당 지역의 전문 판각업자로 볼 수 있는데, ‘勾當雕此經’이라 하여 嚴明家에서 조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유통 자료 가운데 엄명가의 판각 활동에 대해서는, 『禪源諸詮集都序』의 권말 후기에 “後記唐大中十一年丁丑(867) 福州沙門契玄錄 大宋錢塘嚴明男嚴楷勾當雕開板”이라 기록되어 있다.¹⁷⁾ 이 『선원제전집도서』의 국내 전래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엄명가의 嚴楷가 개판한 것이며, 엄명을 이어 嚴楷 역시 판각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송나라 항주 전당의 간행본이 고려에 수입되어 유통된 사례가 확인된다.

『대소주경』의 1087년 이후 유통 상황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1372년(공민왕 21)에 李美冲, 朴成亮, 金師幸 등이 시주하여 권수에 둘 변상도를 판각하였고, 그 판목은 개성 오관산 영통사에 두었다. 이는 변상도판의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에서 알 수 있고, 『대소주경』이 교학이나 신앙의 확산을 위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상과 같이 『대소주경』은 의천의 교장 조조 사업의 일환으로 송나라의 嚴明에게 주문하여 판각하였고, 고려후기에는 변상도를 포함하여 교학과 신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통되었다.

2.3.2 『화엄경강요』의 전래와 유통

『화엄경강요』는 징관의 찬술로 『교장총록』의 ‘大華嚴經 綱要 三卷 澄觀述’에 해당한다. 본서가 고려전기에도 간행되거나 유통의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고려후기에는 원나라의 간행본을 수입하여 간행한 전본이 현전하며, 관련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綱要後序 …(중략)… 今李公受東山而肇開於○/ 彼此真俗相資而流通普法一何類也 綱要之播東韓者 賴我二公始矣 夫是之○ 長燃無盡燈照破昏闇(金+巢) 太定元年甲子(1324) 六月日寓紫玉山息菴古帆謹題跋 …(중략)… 先覺云教借人弘人由教悟則教與人○ 相資而後乃有成也 雞林尹匡靖大夫檢校僉議贊成事 李公樅 忠於君 信於佛 可謂謝司空齊相國之徒歟 公之空門友大長老神日末季叢林之一箇麟角也 早志遊方遂及蘇航 當將還之日 求得大經綱要三卷 而東切欲鋟梓遐傳 而未遇檀緣越金雞臘月李公承(이하 결락)¹⁹⁾

“又寶月大師 修廣 字叔微 姓王氏 杭州錢塘人 九歲出家 十一得度 景祐二年 賜紫 寶元元年 賜號寶月大師 治平中 州請爲管内僧正 …(중략)… 熙寧元年十月 感疾 會門人與嘗所往來學佛之人 告以將終 從容就坐 而逝.”

17) 『禪源諸詮集都序』,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18)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

“華嚴海會 稱周法界依正 主伴 重重 無盡珠網鏡燈 未足爲喻 豈可以凡心凡筆形/容者哉 然凡夫 識味非相 無以生信 由是 古今寫佛經者 皆畫變相冠於卷首 蓋爲令物生信 因此而人道也 其益豈小乎 此注經板 乃 大覺國師 求法入宋 泛海齋來也 所恨但無此變相 某等且依古範 募工彫板 留于五冠山靈通寺 印施無窮者 洪武 五年(1372) 壬子九月日 中正大夫 親御軍 大護軍兼內府令 李美冲 正順大夫 判典儀寺事 朴成亮 忠勤佐命功臣 大匡判內侍府事 金師幸.”

19) 『大方廣佛華嚴經綱要』는 고려대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는 ‘만송-貫367’이다.

이 『화엄경강요』는 1324년에 쓴 紫玉山 息菴 古帆의 제기가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大長老 神日이 소항 지역에서 구득한 것으로, 雞林尹 李樾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고려전기에는 『교장총록』에 입록되어 있던 『화엄경강요』가 고려후기에는 유통본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1324년을 전후하여 간행되었고, 고려대 도서관 소장의 현전본이 국내 전승의 유일본이다.

3.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

3.1 간경도감의 중수와 간행

고려 교장의 조선시대 유통과 전파는 1461년부터 간행된 조선 세조대 간경도감에서 찾을 수 있다. 간경도감의 활동으로는 경전의 언해, 간행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세종대 이래 불서 및 목판의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일부 경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수 또는 중간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우선 홍왕사 교장도감의 원판을 중수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간경도감의 중수와 간행

서명	찬자	원간기	간행기록	소장처	비고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玄範述	大安9(1093)	不明	松廣寺	
妙法蓮華經續述	慧淨述	壽昌元(1095)	不明	신출 松廣寺/松廣寺	
大般涅槃經疏	法寶述	壽昌5(1099)	不明	松廣寺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思孝述	壽昌5(1099)	不明	松廣寺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公哲述 志蘊刪補	壽昌4(1098)	天順五年(1461)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松廣寺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淸空述	不明	天順五年(1461)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松廣寺 舊藏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覺苑述	壽昌元(1095)	天順六年(1462)壬午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松廣寺 舊藏	
因明入正理論疏鈔	雲儼述	不明	不明	개인소장	大屋德城(이상重修)
圓覺經大疏釋義鈔	宗密述	大安9(1093)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新出 松廣寺	
般若波羅密多心經疏	法藏述	大安9(1093)	天順六年(1462)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淸州古印刷博物館	
圓覺禮懺略本	宗密述	壽昌3(1097)	不明	淸州古印刷博物館	
金剛般若經義記	知恩(知玄)述	壽昌4(1098)	不明	淸州古印刷博物館	
法華玄論	吉藏述	建統2(1102)	天順五年(1461)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개인소장	
淨名經集解關中疏	道液述	壽昌元(1095)	天順5(1461) [추정]	延世大	
首楞嚴義疏注經	子璿述	不明	不明	松廣寺 舊藏	중수추정
圓覺經道場修證儀	宗密述	不明	不明	松廣寺 舊藏/대흥사	중수추정

고려 교장의 국내 전과 자료가 일부에 그치는데, 조선시대의 유통이나 전승은 간경도감의 중간이나 중수에서 찾을 수 있다. 교장의 초기 연구인 『고려속장조조고』에서 大屋德城은 간경도감의 중수본으로 위의 <표 5>의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에서 『因明入正理論疏鈔』 등 8종을 들었다. 大屋의 중수본 판정 기준은, 보각, 간판의 凋殘, 문자의 결락, 7印成 후 목필로 補綴을 들었으며, 결락이나 파손된 목판을 그 부족한 판을 증조 보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당시에는 고려의 원판이 상당수 잔존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간경도감 중수본의 가치는 국내외의 유일본이 많은 점을 들었다.²⁰⁾ 한편, 간경도감 중수본의 일부가 고려 교장의 원판목에서 인출된 것이라면, 이는 원간후쇄본에 해당하며, 고려 원간본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초기 연구 이후 『圓覺經大疏釋義鈔』 등 새로운 장소가 확인되면서 교장 간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송광사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지만 간기가 없는 자료가 대부분으로, 그 간행시기 추정이나 교장과의 관련성을 추정키는 용이치 않다. 다만, 서체 등 판식에서 교장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고, 향후 신출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를 기대한다. 다음은 간경도감의 중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간경도감의 重刊

서명	찬자	원간기	유통기록	소장처	비고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	不明	天順6(1462)雕造 刊經都監全羅道光州牧雕造 등	松廣寺 舊藏	
瑜伽論疏	智周述	不明	天順6(1462)雕造 刊經都監/慶尙道安東府雕造/	松廣寺 舊藏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澄淵述	不明	天順5-7(1461-1463)刊經都監 /慶尙道尙州牧雕造 등	海印寺	
起信論疏筆削記	子璿述	不明	天順6(1462)雕造 刊經都監/全羅道全州府雕造	松廣寺 舊藏	
俱舍論頌疏鈔	常眞述	不明	天順6-7(1462-1463)刊經都監 /慶尙道晉州雕造(卷1)/尙州牧(卷2-8)	海印寺	
華嚴經論	靈辯述	不明	不明	松廣寺 舊藏	
開四分律宗記義鏡鈔	行滿述	不明	不明	松廣寺 舊藏	
金光明經文句	天台說	不明	1296년(元貞 2년) 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松廣寺 舊藏	大屋德城 (이상 重刊)
瑜伽師地論義演	淸素述	不明	不明	松廣寺 舊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詮明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成唯識論了義燈抄	惠沼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成唯識論義景鈔	澹凝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成唯識論述記	窺基述	不明	不明	新出 松廣寺	

20) 大屋德城(1937), 76-77.

서명	찬자	원간기	유통기록	소장처	비고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遇榮述	[1092]	不明	新出 松廣寺	
金剛鉉顯性錄	智圓述	不明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新出 松廣寺	
大乘起信論疏	法藏述	不明	天順五年(1461)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개인소장	
天台四敎儀集解	從義集解	不明	天順八年(1464)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보성선원, 고려대 등	

위의 <표 6>은 원간기가 없는 장소류로 대부분 간경도감에서 조조한 것이며, 번각이나 필사 판각 즉 중간임을 판단키는 용이치 않다. 大屋德城은 초기연구에서 『대방광불화엄경합론』부터 『금광명경문구』의 8종을 간경도감 중간본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중간본의 판정에 대해, 원간기가 없는 복간본은 원간본에 의한 것인지는 밝힐 수 없더라도, 『교장총록』에 장소의 서명이 있으면 그것을 교장의 복간이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특수한 소초는 누차 조조되기 어렵고, 현존하는 복간본은 모두 원간기가 없고, 복간시의 간기인 간경도감의 ‘天順’ 연호의 간기가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화엄경론』이나 『유가사지론의연』은 원간기나 간경도감의 간기가 없어도 이 시기에 간경도감에서 조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²¹⁾ 이러한 간경도감의 중간이나 중수에 대해서는 송광사의 신출본을 포함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²⁾

간경도감에서 조조된 장소류를 살펴보면, 간경도감의 조조는 『金剛鉉顯性錄』, 『大乘起信論疏』, 『天台四敎儀集解』가 있고, 간경도감의 奉敎로 진라도에서 조조한 장소는 『大方廣佛華嚴經合論』, 『起信論疏筆削記』, 경상도에서 조조한 『瑜伽論疏』,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俱舍論頌疏鈔』가 있다. 『大方廣佛新華嚴經合論』은 天順 6년(1462)에 光州牧, 全州府, 羅州牧에서 분담하여 조조되었고,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는 慶尙道 尙州牧, 安東府에서 분담 조조되었으며, 『俱舍論頌疏鈔』는 慶尙道 晉州牧, 尙州牧에서 분담 조조되었다.

한편, 『법화경회고통금신초』는 서문 제목 아래에 ‘宋本無字 遼本有之 寫而彫出 以補其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면, 본문은 宋本을 바탕으로 하고, 송본에 없는 서문의 경우 遼本에 의거하여 필사 보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광명경문구』는 진장의 고려 사찰 간행본에서 살펴보았듯이, 1296년 제주 묘련사에서 重彫되었고, 이를 간경도감에서 중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태사교의집해』는 『교장총록』의 ‘集解三卷 從義述’에 해당하며, 간경도감에서는 金屬活字 乙亥字本(1460)과 天順 8년(1464)의 목판본을 간행하였다. 현전 고려대 소장본의 금속활자본에는 ‘延祐元年(1314)甲寅孟秋初吉牧庵老人題’의 題記가 있어 원간섭기에 간행된 바 있고, 간경도감에서 중

21) 大屋德城(1937), 78-82.

22) 강순애,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6). ; 남권희, “간행본 敎藏의 서지적 분석,”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3. ;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송일기, “刊經都監 重修本에 대한 誤解,”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등의 연구가 있다.

간된 셈이다. 1314년의 저본이 고려 전본인지 원나라 간행본인지는 미상이다. 그러나 제기의 내용은 『천태사교의』의 제기와 동일하여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으로는 1464년(천순 8)의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현정기』, 『불설아미타경』, 1465년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이 있는데, 이들의 저본은 고려 교장 장소류의 전본으로 추정된다. 『현정기』는 『교장총록』의 ‘顯正記一卷 科一卷 仲希述’에 해당하며, 『불설아미타경』은 御製 譯解이며, ‘天台智者大師說’인데, 이는 『교장총록』의 『소아미타경』 항목의 ‘義記一卷 天台說’에 해당한다. 또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경문과 주석이 결합된 형태이며, 저자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疏鈔’이며, 교장의 ‘略鈔十二卷 宗密述’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선시대 언해본의 저본은 고려시대의 전본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교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조선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정원의 녹소주경인 『대방광불화엄경소』(이하, 『대소주경』)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간되어 유통되었고, 다수 인정되어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대소주경』의 중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송각본 『대소주경』의 중간

시기	간행처	간행 기록	비고
15세기	淸溪禪寺	『東文選』 권103 姜碩德 『華嚴經跋』	留板
1556-1564년	歸眞寺	卷6末: 嘉靖三十五年丙辰(1556)六月日 黃海道瑞興地嵩德山歸眞寺開板 卷38末: 嘉靖三十九年庚申(1560)盟秋日 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出庵開刊瑞興地歸眞寺留板 권120末: 嘉靖四十三年甲子(1564)春畢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開板	開板
1628-1631년	龍腹寺	권2말: 崇禎元年戊辰(1628)孟冬朔寧地水淸山龍腹寺開板 권58말: 崇禎四年辛未(1631)臘月日終 권120말: 崇禎三年庚午(1630)十二月日 京畿道 朔寧郡 水淸山 龍腹寺 開刊	開板
1633-1635년	松廣寺	卷12末: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刻 卷118末: 崇禎八年乙亥(1635)五月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 卷120末: 崇禎六年癸酉(1633)仲秋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重刻

조선시대 의천관 『대소주경』의 중간은 위의 표와 같이 15세기 청계선사장, 16세기의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판은 명종 11년(1556) 6월 이전부터 명종 19년(1564) 3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판은 인조 6년(1628) 8월경부터 인조 9년(1631) 12월,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판은 인조 11년(1633) 8월부터 인조 13년(1635) 5월 사이에 간행되었다.²³⁾

23) 남권희, “화엄경 주석서의 간행과 유통,” 『고려 제종교장과 화엄장소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

淸溪禪寺 留板은 현전하지 않지만 그 내력은 『東文選』 권103에 姜碩德(1395-1459)의 『華嚴經跋』에서 확인되며, 고려 의천이 송에서 주문하여 판각한 『大疏注經』이 일본에 사급된 이후 信浩禪師의 발원에 의해 申孝昌 일가와 慶貞公主와 효령대군 등 왕실의 찬조로 1,470판이 조성되어 광주 청계선사 『雜華』 판전에 수장되었다. 이 청계선사 판본의 유통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²⁴⁾

귀진사의 개판은 黃海道 瑞興地 高德山 歸眞寺 留板이고, 卷38末 간기에 의하면 ‘嘉靖三十九年 庚申(1560)盟秋日 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出庵開刊瑞興地歸眞寺留板’이라 하여 구월산 월출암에서 개간하여 귀진사에 목판을 이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龍腹寺 開板은 幹善大化士 惠淳이 주관하여 京畿道 朔寧郡 水淸山 龍腹寺에서 開刊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송광사 開板은 권12말의 간기에 의거 重刻이며, 開刊과 開板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있다. 이 판은 전남 보성 오봉산 개홍사와 경상도 곤양군 서봉사에서 일부를 분담하여 판각한 뒤에 송광사로 이진한 사례가 확인된다.²⁶⁾ 또한, 송광사판은 卷120末에 ‘前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覺性校, 前全羅道摠攝融妙都大禪師熙玉’이라 하여 覺性 등의 교증을 거쳐 간행되었다.

송광사판이 완성된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인출하였는데, 인경시주질을 별도로 판각하는 사례와 목서로 기재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경시주질을 판각한 사례는 숙종 12년(1686)에는 경상도의 안음현 덕유산 영각사와 경상도 영천군 운부사에서는 송광사본을 인출하였다.²⁷⁾ 영각사본 권16과 운부사본 권102의 권말에는 “康熙二十五丙寅五月日”로 시작하는 인경시주질이 판각되어 있어, 1686년에 인경시주질을 별도 판각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조선시대 다수의 인경시주질은 권말에 목서기재로 이루어지며, 송광사장관의 인출인 동화사장본 『대소주경』 권57-58의 합본 책말에는 ‘崇德三年(1638)戊寅春印經施主秩 大禪師覺性’ 등 9명이 기재되어 있다.²⁸⁾ 이러한 사례는 조선시대 간본의 다수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사찰 수장용, 공덕 신앙용 등으로 활용된 점에서 그 유통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소주경』은 고려시대에 중단된 일은 없고, 인출본의 유통만이 확인되며, 조선시대에는 중단되어 다수 활용되었다. 현재 국내에 현전하는 송각관의 인출본에는 ‘丁巳七月日 南白寺 持任 熙’, ‘大乘直 智膺 侍奉 覺圓’, ‘印源 侍奉 一雄’ 등의 목서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⁹⁾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76집(2018. 12).

24) 姜碩德, 『華嚴經跋』 (『동문선』 권103).

25) 오용섭(2018), 147.

26) 卷33末: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始造華嚴八十卷內四卷五卷六卷二十八卷二十九卷三十卷三十一卷三十二卷三十三卷移到寶城地五峯山開興寺山人一浩刊… 崇禎七年甲戌(1634)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卷44末: 大經四十三板一隻又十地論三十一板都計七十五板慶尙道昆陽郡栖鳳寺開刊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留轉于松廣寺 時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

27) 卷102末: 康熙二十五丙寅(1686)五月日 慶尙道永川郡西嶺八公山雲浮寺 華嚴經化士文輝比丘.

28) 『大方廣佛華嚴經疏注』, 卷57-58. 또 다른 사례는 卷107-108 印經大施主 崔奉祥兩主 등 30여 명의 人名과 順治十一年甲午(1654)五月日印畢 등이 있다(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표 8> 송각판 『대소주경』의 활용

연번	시기	도서 기록	소장처	비고
1	미상	丁巳七月日 南白寺 持熙	계명대 등	同本
	1552-1554년	권49: 壬子(1552)八月日 始覽 持任 智膺 권46: 嘉靖三十三年(1554)甲寅中秋日 大乘持任 智膺 獨看此經 侍奉 覺圓		
2	1602년	권102: 萬曆三十年(1602)壬寅冬看印源炊飯 一雄	아단문고	
		권114: 萬曆三十年(1602)壬寅三冬敬覽印源 飯僧 一雄	계명대	
		권118: 萬曆三十年(1602)壬寅十一月 敬見印源 侍奉 一雄	중앙도서관	

위의 <표 8> 송각판 『대소주경』의 원간본이나 원간 후쇄본의 활용은 경권의 권말에 기록된 목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전본의 권말에서 확인되는 도서 기록은 ‘南白寺持任熙’, ‘大乘直智膺, 印源, 大菴寺 富仁’ 등이 목서되어 있다. ‘南白寺 持任熙’와 ‘大乘直 智膺’이 함께 목서된 것은 1set였던 것이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南白寺 持任熙’의 목서는 ‘丁巳七月日南白寺持任熙’로 전체가 동일하며, ‘智膺’이 목서된 것은 1552년 8월부터 1554년 9월까지에 해당한다.³⁰⁾ 또 다른 인본인 아단문고 등의 소장본에는 1602년에 印源이 기록한 목서가 있다.³¹⁾ 기타 조선후기의 도서 기록이 있는 천태중앙 박물관 소장본 권41, 아단문고 소장 권28-권30의 1첩 등의 자료에도 목서기가 있어, 조선시대에도 고려 교장의 인본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高麗 敎藏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통해 조사한 한·중·일의 장소 가운데 고려 교장의 국내 불교계 유통과 전승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는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이며, 이 총람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불교계에 유통되어 활용된 장소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서 간략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章疏 및 현전 현황을 살펴보면, 經部 561부 2,719권, 율부 142부 469권, 논부 307부 1,692권 합계 1,010부 4,880권이며, 약 384부가 전존하고 있다. 본고의 고려 교장은 『교장

29) 남권희, “화엄경 주석서의 간행과 유통,” 『고려 제종교장과 화엄장소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30) 권49의 말미에는 ‘壬子(1552)八月日 始覽 持任 智膺’, 권46의 권말에는 ‘嘉靖三十三年(1554)甲寅中秋日 大乘持任 智膺 獨看此經 侍奉 覺圓’의 목서기가 있다.

31) 권102: 萬曆三十年(1602)壬寅冬 看印源炊飯 一雄(아단문고), 권114: 萬曆三十年(1602)壬寅三冬 敬覽印源 飯僧 一雄(계명대), 권118: 萬曆三十年(1602)壬寅十一月 敬見印源 侍奉 一雄(국립중앙도서관)의 목서기가 있다.

총록』에 수록된 장소를 중심으로 의천이 활동하던 시기에 간행된 장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 교장이 조조되어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유통되었지만, 고려시대에 유통된 상황에 대해서는 간기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문헌 자료는 드물고, 조선시대에는 간경도감의 중수와 중간을 통하여 그 일단을 찾을 수 있다.

고려 교장의 고려시대 중간은 주로 13세기에 이루어지는데,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관, 고려시대 사찰 간행과 유통,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 송·원대 각본의 전래와 유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해인사의 간행과 수장 경관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목판으로 원효의 『기신론소』 등 무간기관 9종,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13세기판 3종, 1089년 해인사 중간본 『천태사교의』 1종 등 모두 13종이 확인된다. 이들 경관의 대부분은 간행처와 간행시기가 분명치 않지만, 해인사에서 간행하였거나, 홍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뒤 후대에 해인사에 수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기타 고려시대 사찰 간행 자료는 묘련사에서 중간한 『금광명경문구』 등 3종이 확인된다. 한편, 고려 교장과 관련된 장소류는 안동 보광사 소장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을 비롯하여 『法界觀式抄』, 『圓覺經玄議』, 『無常經新鈔』 등이 있고, 이들 자료는 원간기나 간행기록이 없지만, 국내의 유일본으로 가치는 크다.

대장도감 및 기복도감의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면,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는 장소 가운데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장소는 모두 11종에 이른다. 『四分律刪補隨機羯磨』 등 7종은 재조장으로 간행되었고, 기타 『금강삼매경론』 등 4종은 재조장의 조성 기간에 간행된 장소이며 주로 분사도감에서 간행되었다. 또한 대장도감에 참여한 각수의 판각본으로 『주인왕호국반야경』, 『홍찬법화전』이 확인된다. 고려후기 유통과 관련하여, 기복도감에서 『천태사교의』를 중간하여 유통하였다.

고려 교장으로 활용된 장소 가운데 송나라에서 판각하여 수입한 『대방광불화엄경소』(이하, 『대소주경』)는 의천의 교장 조조 사업의 일환으로 송나라의 향주 판각업자 嚴明에게 주문하여 판각하였고, 고려후기에는 변상도를 포함하여 교학과 신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통되었다. 또한 징관의 『화엄경장요』는 송간본은 아니지만 원나라의 간행본을 수입하여 간행한 전본이 현전한다.

고려 교장의 조선시대 유통과 전파는 1461년부터 간행된 조선 세조대 간경도감본에서 찾을 수 있다. 간경도감의 활동으로는 경전의 언해와 간행 등이 주목되는데, 고려 교장과 관련하여 세종대 이래 불서 및 목판의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일부 경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수 또는 중간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간경도감의 중수본으로 『인명입정리론소초』 등이 있고, 최근 송광사에서 『원각경대소석의초』 등 새로운 장소가 발견되면서 교장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이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간경도감의 중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간기가 없는 장소류로 간경도감에서 조조한 것이며, 이들 중간본이 번각이나 중간임을 판단키는 용이치 않다. 초기연구에서 『화엄경합론』, 『금광명경문구』 등의 8종을 간경도감 중간본으로 추정하였지만, 최근 송광사 등에서 신출본이 발견되면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으로는 『반야비라밀다심경약소현정기』, 『불설아미타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이 있는데, 이들의 저본은 고려 교장 장소류

의 전본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조선시대 언해본의 저본은 고려시대의 전본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교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고려 교장의 중간과 유통을 살펴보면, 『대소주경』은 고려시대에 중간된 일은 없고, 인출본의 유통만이 확인되며, 조선시대에는 중간되어 다수 활용되었다. 『대소주경』이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간되어 유통되었고, 다수 인정되어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대소주경』의 중간은 15세기 청계선사장, 16세기의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판, 17세기의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판이 간행되어 활용되었다.

본고에서는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되어 활용된 고려 교장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려 교장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불교계의 교학이나 불교 상호교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東文選』 권103. 「姜碩德, 華嚴經跋」.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4年 甲戌(條).

교장프로젝트팀; 연구사업단(교장도감)편. 『新編諸宗教藏總錄: 收錄文獻 總覽』 [1] · [2].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19.

김성수.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75(2018. 9). 145-177.

김영미. “高麗大藏經本 『釋摩訶衍論』의 底本 연구.” 『梨花史學研究』 59집(2019. 12). 129-158.

남권희.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종의 書誌的 考察: 圓覺類解, 法華文句并記節要.” 『書誌學報』 제19집(1997. 1). 3-64.

남권희. “諸宗教藏 文獻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2017년 고려 교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7. 55-104.

남권희. “화엄경 주석서의 간행과 유통.” 『고려 제종교장과 華嚴經 章疏 자료집』.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4. 125-181.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日本 東京: 便利堂, 1937.

송일기. “刊經都監 重修本에 대한 誤解.”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83-98.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76집(2018. 12). 135-158.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서울: 시간의물레, 2014.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접속일 2020.8.5]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yojang-Project team. 2019. *Sinpyeonjejong-gyojangchonglok: List of included literature*. Seoul: The Reserch Institute of the Tripitaka Koreana.
- Kim, Sung-Soo. 2018.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Stored at Baekcheon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145-177.
- Kim, Young-mi. 2019. "A Study on the Original Script of Explanation of the Treatise on Mahāyāna (釋摩訶衍論) in the Goryeo Canon." *Bulletin of the Ewha Institute of History*, 59: 129-158.
- Nam, Kwon-Hee. 1997. "A bibliographical review of the three Buddhist Buddhist scriptures of the 13th century." *SEOJHAKBO*, 19: 3-64.
- Nam, Kwon-Hee. 2014.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Hwaomgyeong commentary." *The jejonggyojang of the Goryeo dynasty and Hwaomgyeong commentary* (pp. 125-181). Seoul: The Reserch Institute of the Tripitaka Koreana.
- Nam, Kwon-Hee. 2017. "How to access and study the jejonggyojang literature." *Proceedings of the 2017 Conference* (pp. 55-104). Seoul: The Reserch Institute of the Tripitaka Koreana.
- Oh, Yong-Seob. 2018. "A Bibliographical Study on Daebanggwangbul-Hwaomgyeongs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135-158.
- Ryu, Boohyun. 2014. *A Study on the bottom book of the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and its carved book*. Seoul: Siganeuimulle.
- Song, Il-Gie. 2018. "The Misunderstanding about Repairing Edition Printed in Kangyung-dogam."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83-98.

